

(3) 음악

칠레의 음악시장은 2009년 5,800만 달러에서 2013년 7,500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오프라인 음반 시장은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2013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추세는 향후 지속되어 2018년까지 연평균 8.8%의 하락세를 보이며 빠르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 시장과 공연 음악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칠레 음악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 8,600만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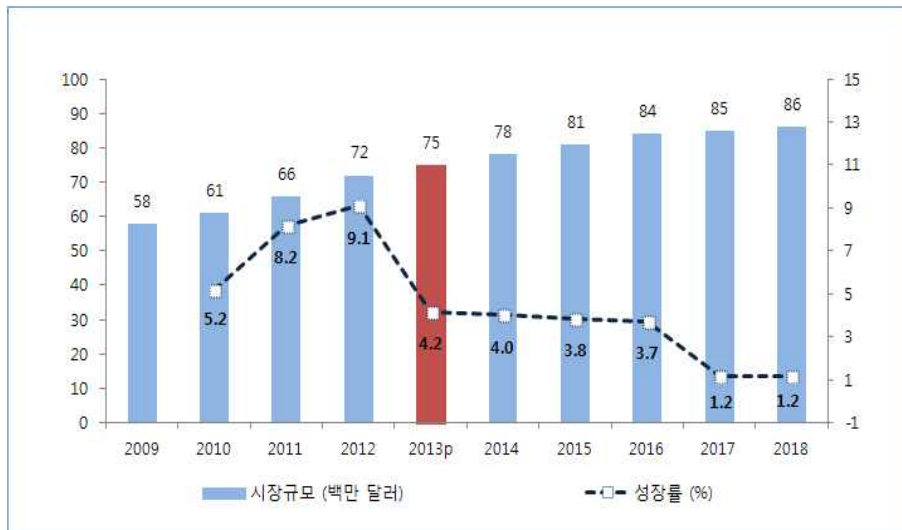
[표 7-5] 칠레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음반	28	29	33	38	39	40	42	43	42	40	0.5
오프라인 음반	22	23	28	30	29	27	26	24	21	18	△8.8
디지털 음원	6	6	5	8	10	13	16	19	21	22	16.8
공연 음악	30	32	33	34	36	38	39	41	43	45	4.8
합계	58	61	66	72	75	78	81	84	85	86	2.7

출처 : PwC(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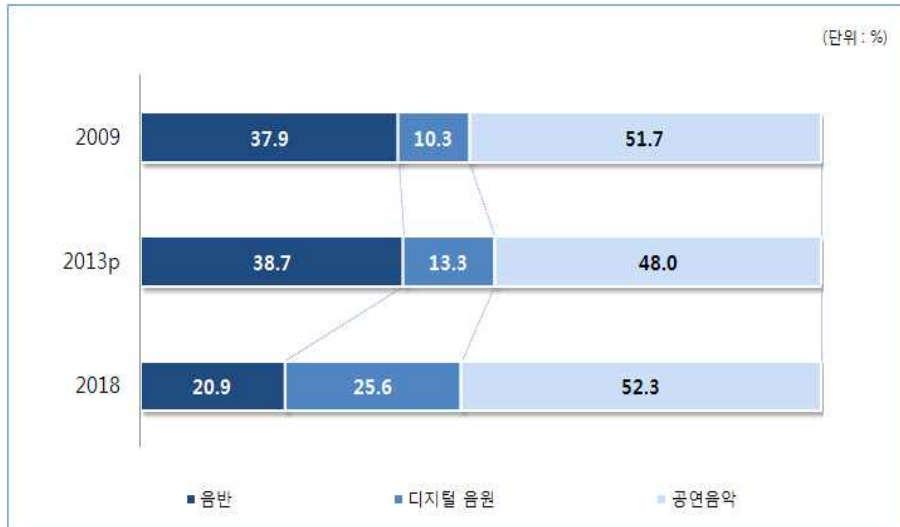
[그림 7-13] 칠레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

칠레의 음악시장은 공연 음악시장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음악시장은 2009년 전체 시장의 51.7%를 차지하였으나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으로 2013년 48.0%까지 시장점유율이 다소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체 칠레 음악시장에서 공연 음악시장과 디지털 음원시장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9년 10.3%에 불과하였던 디지털 음원은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2018년에는 전체 음악시장의 25.6% 점유율을 차지하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14] 칠레 음악시장 분야별 비중 비교, 2009 vs. 2013 vs. 2018



출처 : PwC(2014)

가. 오프라인 음반

2013년 칠레의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일상화된 불법복제물과 디지털 포맷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어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3.3% 감소한 2,9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칠레에서는 전체 CD 매출 중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인 상황이며 디지털 음원시장으로의 이행이 시작되어 오프라인 음반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8%의 하락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1,8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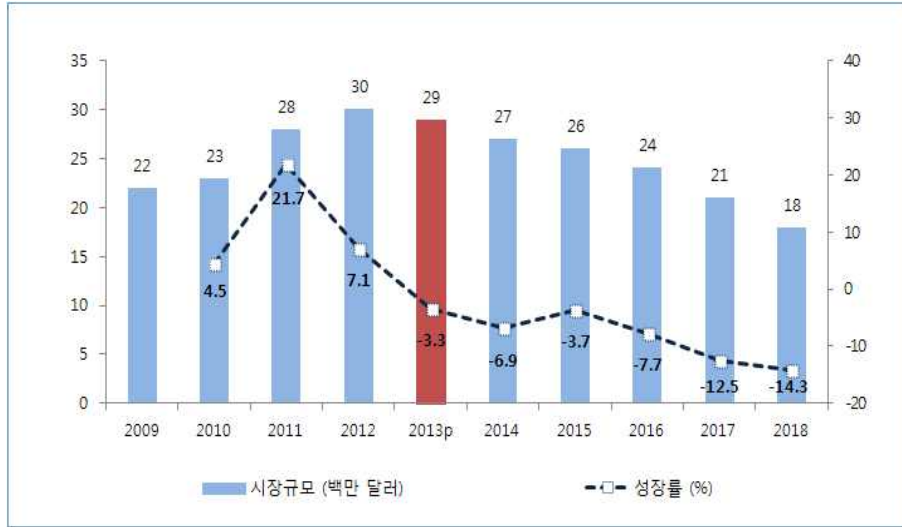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칠레

[그림 7-15] 칠레 오프라인 음반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제2절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칠레

나. 디지털 음원

2013년 칠레의 디지털 음원시장은 전년대비 25.0% 성장한 1,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칠레에서는 다운로드가 가장 인기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직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디지털 음악의 90% 이상이 불법적인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P2P 교환을 통한 파일 공유와 블로그와 SNS에 게시된 링크를 접속해 음악을 받는 방식이 가장 대중적이다. 하지만, 디지털 음원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며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16.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18년 2,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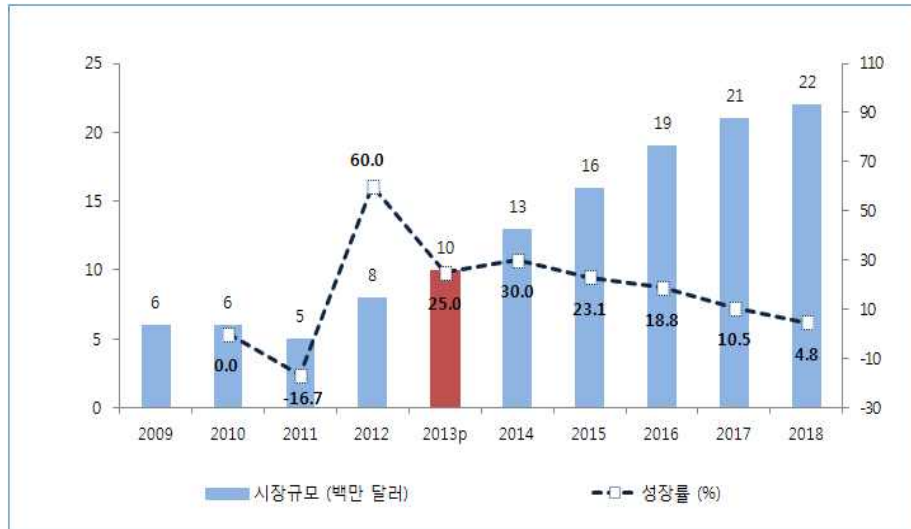
[표 7-6] 칠레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다운로드	1	1	1	3	6	8	11	14	16	17	24.6
스트리밍	-	-	1	1	1	1	2	2	2	2	13
모바일	5	4	4	4	3	3	3	3	3	3	△0.7
합계	6	6	5	8	10	13	16	19	21	22	16.8

출처 : PwC(2014)

[그림 7-16] 칠레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

다. 공연 음악

2013년 칠레의 공연 음악시장은 전년대비 5.9% 성장한 3,6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공연 음악에 대한 지출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칠레에서 음악 축제로 유명한 곳은 산티아고로, 2개의 주요 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Ultra Electronic Dance Music 페스티벌’은 2월 말에, ‘Lollapalooza’의 칠레 로컬(현지) 버전은 3월에 개최된다. 그 밖에 칠레에서 주목할 만한 페스티벌로는 3월에 6일간 열리는 ‘Festival de Vina del Mar. Held’가 있다.

이러한 공연은 노래 경연과 함께 해외의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이루어진다. 공연 문화에 친숙한 칠레인들의 특성과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심리 향상으로 향후 공연 음악시장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2018년까지 연평균 4.8% 성장한 4,5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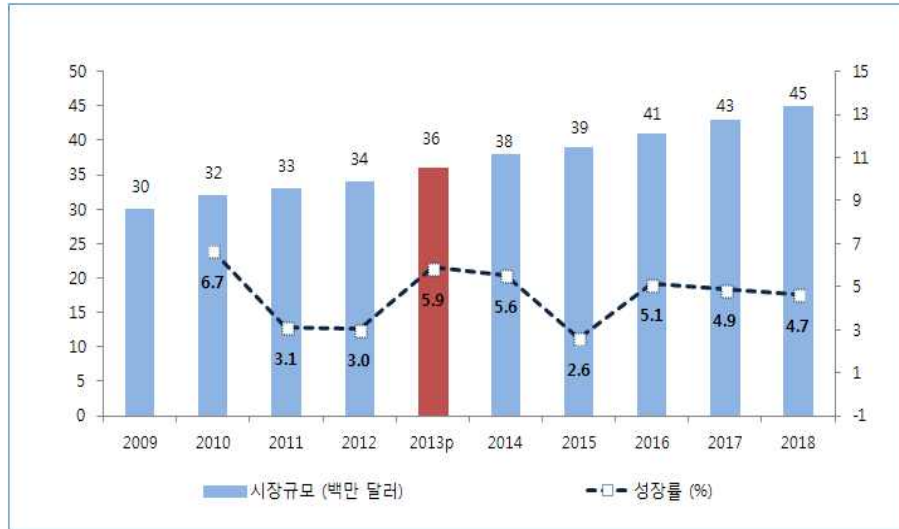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칠레

[그림 7-17] 칠레 공연 음악시장 규모 및 성장률, 2009-2018



출처 : PwC(2014)

[표 7-7] 칠레 공연 음악시장 규모 및 전망, 2009-2018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p	2014	2015	2016	2017	2018	2013-18 CAGR
후원	6	7	7	7	8	8	8	9	9	9	4.7
티켓 판매	24	25	26	27	28	30	31	33	34	36	4.9
합계	30	32	33	34	36	38	39	41	43	45	4.8

출처 : PwC(2014)

제1절

1. 미국

2. 캐나다

제2절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